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김영순
편집장	김영순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65-7048, 961-4152)
	130-731 서울 서대문구 아문동 270-1
	449-731 경기도 용인군 보현면 장신리
인쇄인	김영순

547호 1990년 9월11일(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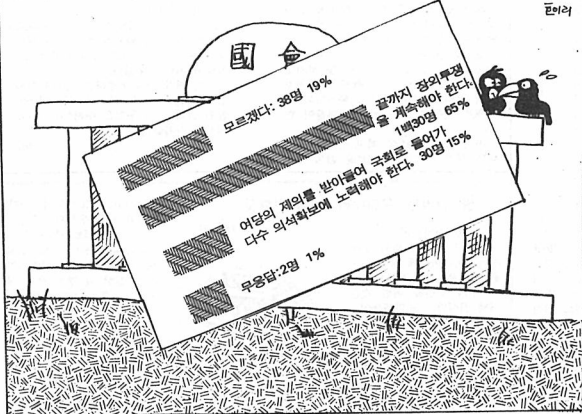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2253호

제151차 정기국회 외대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 무시한 국회 용납할 수 없다"

사회서를 제출한 야당원들의 이후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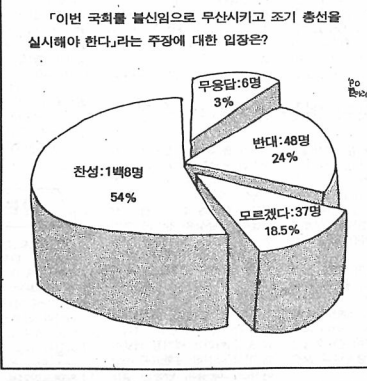
질문1: 지난 7월14일 국회에서 민자당이 의해 군조직원, 방송법, 공무보상법등이 난치기 통과와 원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었으므로 피지 못할 일이었다. 3명
개헌방향을 내용으로 문제가 없었던 통과와정에만 문제가 있었다. 5명
개헌내용에서부터 난치기 통과까지 순전히 국민을 무시한 반민주적 행위였다. 178명
질문2: 민자당이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생각은?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즉 정사이어야 한다. 2명
여야 합의 하라면 국민은 따르기로 하겠다. 9명
정권안정을 위한 정략적 계획이므로 절대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 48명
질문3: 사회서를 제출한 야당원들에게 민자당은 어떤 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국회는 용납할 수 없다. 48명
모르겠다: 37명 18.5%

의원들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의 제의를 받아들여 국회로 들어가 다수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30명
곧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189명
모르겠다: 38명 무응답: 2명
질문4: 9월10일 정기국회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가장 부각될 문제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내각제 개헌문제: 1백51명
예산문제: 20명
국회의원 수에 대한 문제: 13명
질문5: 이번 국회를 불신임으로 무산시키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찬성: 1백89명 54%
반대: 48명 24%
모르겠다: 37명 18.5%
질문6: 5.16과 같이 심각한 이유는?(주관식이며 계속 불거지는 이유를 3문항까지 작성)
국회의원 수에 대한 문제: 13명
예산문제: 20명
국회의원 수에 대한 문제: 13명
질문7: 이번 국회를 불신임으로 무산시키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찬성: 1백89명 54%
반대: 48명 24%
모르겠다: 37명 18.5%

9월10일 정기국회를 맞아 현재, 사회서를 제출한 야당원들과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데 개헌을 강요할 수도에 이용하려는 민자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본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내외 개헌과 정기국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용인 각 1백명씩 총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었지만 야당원들의 의견을 일정정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부터 난치기 통과까지 국민을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위였다가 대담함으로써 다수의 외대인들이 난치기 통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또 민자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에 대한 불응에서 79.5%인 1백59명이 정권안정을 위한 정략적 계획이므로 절대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답해 현재 민자당이 계획하고 있는 내각제 개헌이 정권안정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서를 제출한 야당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응에서는 65%가 곧까지 장외투쟁을 주장해야 한다고 답하고 15%가 여당의 제의를 받아들여 국회에 들어가 다수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는 회의주제와 상관없는 내각제 문제를 주된 회의 내용으로 삼을 것이라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이번 조사에서 마지막 불응이 있었던 국회 불신임에 관한 문제에서는 찬성이 54%, 반대가 24%, 모르겠다가 18.5%였는데 찬성하는 이유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국회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민자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가 주를 이루었고 반대의 이유는 「국회를 해산할 경우 국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이유와 「우리가 뽑았으니 회기는 채워야 한다.」 「국회를 해산해도 별 대안이 없다.」가 주를 이루어 민주세력의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내주었다.
이번 설문 결과로 외대인의 정치의식이 코조되어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지만 각 문항마다 모르겠다 내지는 무응답이 10% 이상씩을 차지해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치의식이 어느정도 아직까지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정성필기자)



사설

대학 내 심야 퇴폐화 누구 탓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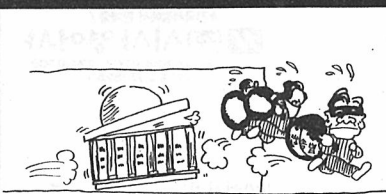
최근들어 부쩍 일간지에 대학내의 심야퇴폐화에 대한 보도가 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를 규탄(?)하는 듯한 강도 높은 여론까지 일고 있다. 물론 이는 어찌어찌한 일인 아니어서, 특히 주로 밤-가을 대동행에 있는 기간이던 술과 비도덕적 행동으로 스스로 대학의 위신을 더럽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학생자신들의 자정도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여기에 대한 가정인론의 보도자세가 그 정도를 의심할 정도로 매우 색다른 방향으로 치닫는데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받던 미치 심야의 대학규는 온통 폭력과 난잡한 성행위가 판치며 미국의 합법기를 연상시키는 「밤의 사자」로 파격하여 보도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확대 파격보도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원인을 「늦게 폭력범죄로 대학을 일목지개한다」는 동경학생들이 밤을 자제해 그러한 도덕적 타락을 부추릴 것이라는 비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학을 아는 대학인이라면 예컨대 근자에 들어 대학규에서 집단적인 폭력-음주행위가 심해지고 있음은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행위를 하는 80-90%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청소년들에게 의해 벌어지는, 어쩌보면 사회문화의 퇴폐화-황폐화와 연관이 더욱 깊음도 역시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정인론에서 감추어는 전정된 대학내퇴폐화의 원인을 어디에 있는가. 물론 현상적으로는 앞서 말한 일반인-청소년 그리고 소수의 사회-향락적인 대학생들의 개인적 도덕적 마비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사회전반적 퇴폐문화의 만연과 밀접적 연관이 있음은 유감없이 대동행시된 이들을 그들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있는 권력-재벌등 일부 유한 계층들이 세계말기적 퇴폐행위-폭락행위인 인사이론이나 하는-를 우리사회에 유입시켜, 가장 선도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부추릴것임이 사실이다. 더불어 여기에 이들을 폭언한 현정권의 정태도 간과할 수 없다. 말로는 도덕적정치와 민주주의를 말하며 실제로는 국민의 탈정치화-정치소외화를 위해 그간 정권은 꾸준히 3S문화정책을 방관한 아닌 의도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퇴폐문화의 원상지키는 미국-일본에서 양기-패쇄문화를 영입하 출발문들을 통해 보급해온 제국주의 문화침탈자들도 오늘날의 한국사회의 문화퇴폐화의 책임자일 것이다.
바로 이것은 사회구조적인 근본문제들을 비롯하여 지금의 대학사회의 퇴폐화에도 해당하는 정태와 인본의 의도는 자명하다. 바로 그들이 발목을 가리키고 폭력적 정태력으로 대학에 난입하여 수색-학원행동등으로 심적적인 「밤의 사자」를 만들어 왔던 것인지도 또 다시 학원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감을 유입시키는 여론을 조장하여 이를 동요하고 학원에 공권력을 행사보려는 지의가 그것이다.
이제 분명 언급해도 이러한 말만이 된 대학의 문화퇴폐화를 바로잡고, 진정한 자주적대학문화를 지키기위해서는 우리 대학인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사회적으로는 철교교도 단절되어 폐쇄적 풍속문화에만 매이는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내부적으로는 대학인의 무의식적 생활속까지 교묘히 파고든 퇴폐적문화들을 세뇌하는 일에 절대 구제적인 준비를 할 때이다.
이에 최근 서울캠퍼스에서 시작된 「외대사랑 규약」의 활동은 단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위한 조건의 대학문화조성이란 의미에 부합되는 매우 고무할 만한 움직임이다.
반면 서울캠퍼스에서는 멀리 지역문화로부터 인해 받아들이면 인적이 뜬 공동의 관심을 받는 용인캠퍼스의 경우, 좀더 학생들이 장담할 수 있는 문화정화행위와 학내 건전한 문화거거지를 건설할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면안내

- (4면) 기획시리즈 통일비망록-북한의 의식주
- (6면) 사회기획-9-4 남북고위급회담을 정리한다
- (7면) 문화논평-정치포스터, 적외투기보 적용된다
- (8-11면) 제8회 외대학술상-수상자 지면발표
- (12면) 보도기법-중앙교과과정개발위원회의 건선에 대한 계언
- (13면) 심층논의-예비역 복합성 전투부대 거부투쟁
- (14면) 기동취재-미평가서 북한까지 투쟁에서 해방로
- (16면) 시평-1팀까지가 우리,를 읽고

(말씀) 이번 547호는 제8회 외대학술상 수상자 게재 관계로 16면이 발행됩니다.

외대학보 44기 수습기자 모집 원서 마감 박두: 내일(12일) 까지



7월14일 날치기 사건...

날때부터 날치기로 태어난 민자 그들은 그날 불과 몇분만에 방송법-군조직원 등을 날치기해갔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것을 훔치기위한 준비였다.

그리고 9월10일 정기국회, 이번엔 무엇을 훔치려?

이제 그들은 확실한 것을 훔치려 했다. 내각제...
맘놓고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는 큰 것! 하지만 이번만은...



민중주자 언론을 구현하는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

-9.4남북고위급회담을 정리한다

장미빛 회담은 아니었다

9월 초순은 북한의 언론이 남북고위급회담을 거의 매일 대서특필하며 쓰던 표현대로 「7천만 민족과 온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집중」되던 때였다. 이제 그 회담을 평가하면서 회담 자체가 가져오는 의미와 남북한국교의 입장을 재조명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회담이라는 획기적인 성격에 매달린 나머지 회담을 이끌어 내게된 근본적인 원동력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높다.

회담이 이뤄지게 된 배경은 표면처럼 있는 8-15 범민족대회를 원인으로 배후로 당국자간의 대화인 고위급회담이 일어난 남북정치의 차이는 이후에 전개될 통일논의에 있어서도 정치적 「장구단일화」논리를 고수할 것임을 나타낸 정책이란 수 있는 것이다. 회담의 내용면에서도 남북한 국외제의를 보면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공허한 상태에서 결코 장만한 면이 없지 않다 하겠다.

그 첫째로 유엔가입에 대한 입장차였다. 올 가을에 개최되는 유엔총회에 대한 남한은

민족통일론과 직결되어 있어 국민대부분은 실질적 불균형을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전후 공산통치에 대한 불신과 그 결과성을 회색화시켜 민간구조와 통일논의를 일축하려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셋째, 남북인사들에 대한 석방에 대해서 「실질법을 어긴 사람들의 처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태도를 보여 남-북고위급회담상사 자체가 규격하는 국가보안법의 비효율성을 애써 부인하려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외에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수준이 아닌 「환관도



남·북의 통일정책이 합법공인에서 확인되 드러나는 계기였다 (사간:한겨레신문)

민간교류 통제해서 기대감·실망감 적어 통일논의 주도권잡고 장기집권 관철의도

남북한 당국자들의 「통일」에 대한 일시적 충동 때문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온 남북통일 세력들이 쌓아올린 적극적인 통일운동의 성과물에 대한 「수색적 내용」로 보아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또한, 이번 회담의 성과를 확대해석하는 언론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첫술에 배부름이 없다」며 만만 자제에 의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반감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내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는 미약하지가 않다.

도에서 흘러나오는 이같은 「정정한 평가」의 근거는 현 정부가 자국의 민간교류를 철저히 통제해 오다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거주민 민간교류의

의 단속기업을 보류하겠다는 답변을 「발동」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는 성과로 들고 있지만 한편엔 생각해보면 「발동」이 존재하고 있음은 더욱 확인해 줄 것이다. 특히 언론 분야는 남한인의 단독기법이나 특유의 의식으로 남-북통일시점이 통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끌기 시작했었다. 이번 회담은 남북통일을 위한 유엔가입의 「의의」를 반증하는 데로 불어가고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름이 없다」며 만만 자제에 의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반감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내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는 미약하지가 않다. 도에서 흘러나오는 이같은 「정정한 평가」의 근거는 현 정부가 자국의 민간교류를 철저히 통제해 오다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거주민 민간교류의

지난 호에서 주저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공산주의 보호무역) 「통일」 및 서비스의 자유무역으로 요약된다. 즉 전후 공산통치에 대한 불신과 그 결과성을 회색화시켜 민간구조와 통일논의를 일축하려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셋째, 남북인사들에 대한 석방에 대해서 「실질법을 어긴 사람들의 처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태도를 보여 남-북고위급회담상사 자체가 규격하는 국가보안법의 비효율성을 애써 부인하려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외에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수준이 아닌 「환관도

피보자.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외국의 금융서비스가 국내에 자유롭게 공급됨을 뜻한다. 이는 성장잠재력의 경우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외국의 금융기관이 콜라보로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의 금융수요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편 개방된 지수적으로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협상에서 정점은 국내법이 외국금융기관의 설립을 얼마나 허용해 주는

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개방은 외국의 금융서비스가 국내에 자유롭게 공급됨을 뜻한다. 이는 성장잠재력의 경우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외국의 금융기관이 콜라보로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의 금융수요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편 개방된 지수적으로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협상에서 정점은 국내법이 외국금융기관의 설립을 얼마나 허용해 주는

식당·보양·개인서비스등 거의 모든 서비스부분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모든 분야의 일괄적 접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80년대 미국 무역역사의 관련해 미비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가는 국내로 보호주의자들의 수포로 301조 강화전의 국제기능성 과 관련된 각국 대외부가 들먹이는 향후 국제무역에 대한 인종차별 발전하는데서 우루과이라운드의 성사는 중요한 관건이 될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성사될 경우 선

제국주의 지배전략과 경제위기

(하) 우루과이라운드가 한국서비스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소득감소·경제혼란등 경제의 대외종속화 경쟁력 취약한 국내정보통신산업에 치명타

라운드에 우루과이라운드의 이들과 대해 국내 금융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느냐의 문제(내국대우문제)로 제기된다. 둘째, 외국금융자본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을 통해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이자지급이라는 국내소득 재분배를 수반한다. 셋째, 대외 이자 지급은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환율변동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국내총생산(GDP)은 10%와, 서비스업(58%)이 개방될 경우 그 충격파는 엄청난 것이다. 이런 기본적 상황인식에서 서비스부문을 협상이 타결된다면 가장 큰 파급이 우려되는 「금융」과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개방의 의미를 살

나는 문제(시장접근의 문제)와 이들과 대해 국내 금융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느냐의 문제(내국대우문제)로 제기된다. 둘째, 외국금융자본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을 통해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이자지급이라는 국내소득 재분배를 수반한다. 셋째, 대외 이자 지급은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환율변동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국내총생산(GDP)은 10%와, 서비스업(58%)이 개방될 경우 그 충격파는 엄청난 것이다. 이런 기본적 상황인식에서 서비스부문을 협상이 타결된다면 가장 큰 파급이 우려되는 「금융」과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개방의 의미를 살

금융시장을 조기개방할 경우 실물경제 자체가 외국금융자본의 지배에 놓이게 될것이다. 통신분야 협상의 정점은 시장개방의 범위문제로 미국·EC는 전화·팩스 등 기본 통신의 모든 통신서비스 개방을 요구, 협상에서 기본적으로 관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된다고 보인다. 통신개방은 또한 정보통신이 많이 이용되는 항공·금융 등 서비스업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우려하고 있다. 그의외도 서비스협상그룹에는 전자·유동·교육·호텔·

한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은 분명하다.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는 각국차별주의적 특성과 본과 노동자·농민·중소상공인 등 각 계층별로 다양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부적으로 계급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로 관철될 것임이 대외외의 대상이다. 결국 미국의 제국주의적 제본논리는 그 이면에서 국내계급간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제국주의의 평화 정책을 고조시키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김중성 (대학원 정교과 석사과정 2학기)

우루과이라운드 중 우리나라 증권 분야의 대응방안	현재까지의 외국증권사의 국내진출 현황을 보면 정부보수입을 위한 사무소 형태와 「외자도입」에 의해서 제한된 합작형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영국계 9개, 미국계 6개, 일본계 6개, 홍콩, 스위스 각각 2개등 총 25개 사무소가 진출해 있으며 자본참여는 락기증권과
URR비타협점주요개념원칙	현행제도 및 규정	검토 사항
공개주의	영양규범준수 국내증권법칙 허가	일치의 경우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설정 필요
점점적자유화	외국증권사 국내법칙 준용 및 신의의 원칙준수	규제적 허용기준 및 업무내용 지정 필요
노동력이동	이후 자유화계획필요	이후 자유화계획필요
내국민의대우	국내법규를 허가받은 외국증권사의 경우 자국민 규정의 국내증권사와 동일하게 취급	신설외국증권사에 기존 증권법외 모든 증권법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현재의 취급규정범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기준과 방법을 설정할 필요있음
외국대우무차별주의	시장접근의 경우, 증권거래법에는 외국증권사의 국내법칙 준용이전행 시, 설계도 회계규정대우를 이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미정	금융분야에서 외국대우가 어떤 형태로 합의느냐에 따라 달라질것이지만 화사법문의 경우 조건적 회계대우는 금융산업상 불가능

스페인어사전의 최대 걸작!!!

등록번호 라-4750

“月刊 스페인어세계”

EL MUNDO ESPAÑOL

12월 창간기념 원고를 기다립니다.

◎ 시, 소설, 단편 등 우리 작품을 서반아어로, 서반아어 작품을 한글로 번역하여 본지로 보내면 본지에 1년간 게재된 작품중에서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을 뽑아 EL PREMIO DE CERVANTES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 원고는 수시 접수하고 접수된 원고는 반환치 않습니다.

◎ 문의처 : 735-6734 도서출판 월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19-1 경일빌딩 217호(YMCA 후문 앞)

※ 생활스페인어회화 II, II 카세트테이프 15개+교재 2권 정가 65,000원 30,000원으로 100세트만 할인판매

◎ 도서출판 월출

사회과학부문

가작

한국 중공업 기관(機關) 형성 및 변화 연구



I. 서론

가. 문제의 제기
국가발전은 물론 행정의 적극적인 민
동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정책
의 등장은 신생국 또는 발전도상국의
효과적인 국가발전을 돕기 위한 기술적
요소의 하나로서 1960년대 미국의 경제
정책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동종
적이며 이론적인 행정조직의 동태학을
통하여 이해적인 사회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발전전략과 전략이
발전도상국에 공급된 것이었다.

II. 한중의 기관성격
70년대 정부의 강력한 중화학공업 부
지정책에 의해 한중의 전신인 현대양행
은 76년 11월 장원공장을 착공하면서
발전설비 분야에 의욕적으로 진출하였
다. 그러나 79년 5월 정부의 발전설비
이원화 정책으로 현대중공업이 흡수 통
합 조직이 되었다. 현대양행과 현대
중공업과의 통합은 왜곡된 기업구조
인 80년 8월 전두환정부의 강압적인 조
치로 대우중공업으로 경영권이 이전되
었으나 두달만에 기업체로 전환하였
다. 한편, 산업은행에 의한 주식회사 형
태의 기업으로 변화되었지만 투자의
의욕은 영영은 커져나갔다. 6공 출범
후 90년 2월까지 정부는 민영화 추진
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기관행성의 연구는 기관내적인 기관
변수와 기관외적인 환경의 연계 변수의
상호의존적 상관관계를 분석의 대상
으로 한다. 기관의 개별적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또는 연구상의 목적과 제
약조건에 의거하여 다양한 변수가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기관행성 및
변수를 측정하는 기관행성도, 경영관-경
영실적-제도차이인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세변수로서는 기관활동에 필요
한 권한과 자원을 통제하는 외부조직과
의 연계를 의미하는 수권적 연세로서
정치적 요인, 그리고 생산활동과 관련
된 기능적 연세로서 경제적 요인을 경
리해 본다. 이러한 변수들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기관외적인 연세변수가 기관
내적으로 작용을 두고자 한다. 즉 한중
의 기관내적인 경영관-제도 등의 변
수는 정부정책에 의해 어떻게 좌우
되었는가를 장원의 변동 과정에서 현
명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의 생산활동
과 민간정부부분은 어떠한 연혁관계
를 형성해 왔는가를 규명해 본다.

다. 지도령
89년 3월 한중의 노동조합이 발표한
「한중의 민영화에 대한 우리의 주장」에
서 「최고경영자의 빈번한 경질로 인해
백년지계인 중공업기업 계획의 순조로
운 추진은 물론 계획안마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89
년 5월 한중의 직원들은 경영회의 전체
조직원으로서 「전공경영인의 영입과 균출신
및 국영기업 출신 경영진을 교체해줄
것」을 권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은 다른 기업과 마
찬가지로 실무경험이나 전문적인 식견
도 없는 외부인사들이 사장으로 선임됨
으로써 조직의 사기저하는 물론 경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하였다. 「낙산의 인
사」로 불리는 외부 인사의 유입은 인사
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트리며 조직을
불안정한 상태로 몰고갔다. 이런 비공
식적 인사는 전직관료나 군인에 대한
정치적 경질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인원의 비례와는 부차적인 문제점을 동
반하였다. 즉 경영이론이나 전문지식이나
균일성을 위하여 만든 조직이 되어버린
것이다. (표 2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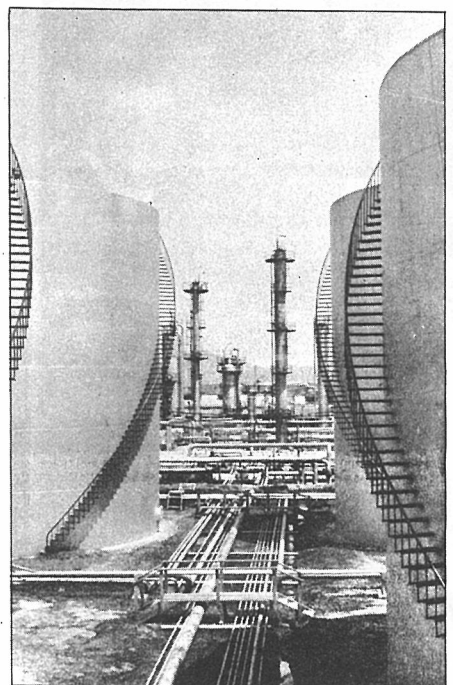
한중이 기업으로 전환된 80년 이후
의 사장에 대한 인사 경질은 경영의
변동에 의한 정치적 변화와 비슷한 시
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위 원리보다는 가문의 보다는
고위 경영인으로서 인사정책에 있어
정치색이 뚜렷해진다. 한중의 현대 사장은
모두 외부로부터 유입된 전직 군인
이나 관료 또는 국영기업에 임원되었
던 한중자체에서 부터 승진해 올라간
사장은 한때도 없었다. 사장의 재임
기간을 분석해 보면 경영의 변화는 2년
도 못되는 개인의 경영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 자리에
서 물러나야 했다. 이렇게 최고경영
진에 대한 인사는 즉흥적이고 임의적
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로서 한중의 3대
사장인 박정기씨는 당시 한중 사장이었
던 정약철과 한중의 전설관리자를 한

Table 1: (한중의 경영현황) showing financial data from 1982 to 1989. Columns include Year, Revenue, Expenses, and Profit.

Table 2: (한중의 역대사장 명단) listing past presidents with columns for Rank, Name, Tenure, and Achievement.

Table 3: (한중과 관련된 정부정책 변화) detailing government policy changes from 1976 to 1989, including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ivatization.

정부의존의 기업경영을 탈피하고,
자체적인 경영전략과 관리능력을
통해 주체적으로 나서야
중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극한 대
립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좌절을 재
회기 위해 한중의 자리를 찾아다니
며는 웃어웃할 흔적을 보였다.
90년 2월 한중의 민영화를 포기하고
당시 행정중심지 사장이었던 안철학
을 사장으로 발탁한 것은 전공경영인
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그가 과연 민간기업이 아닌



마창에서 안산까지

투쟁에서 해방으로



본신당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이 동료들과 함께 입원하고 있는 의왕시 시흥병원 앞에서 매달려서 보고대회를 가지고 있다.

안산 금강공업, 대구 남원철강, 마산 한국스틸, 부산 동광이내등 전노조가 7월 27일(수) 안산에서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도로 「노사협회의는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는 의왕시 시흥병원 앞에서 매달려서 보고대회를 가지고 있다. 안산 금강공업 노동조합은 7월 27일(수) 안산에서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으며 싸움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4시경에는 공권력이 투입되어 정문 앞에서 농성하던 조합원들을 포위해 오시시켰다. 이장철을 현재 성심병원에서 입원중인 박성호 노조 부위원장의 녹음된 옥중 편지를 통해 「조합원들이 이

거인과 공권력에 짓눌린 마창노련 한국스틸과 안산 금강공업을 찾아서 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 노동조합은 7월 27일(수) 안산에서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이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 27일(수) 안산에서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이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 27일(수) 안산에서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이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 27일(수) 안산에서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금강공업 노동조합

불끄려는 동료 노동자 집단구타 연행

한국스타 노동조합

수출지역 여성 노동자 폭행·임산부 유산

금강공업 노동조합

「배운것을 무척이나 자랑하고 나서 이렇듯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야 알았습니까? 기업주 정권, 경찰들은 손발이 뻗은 대로 있는 폭력배, 정권배 있었습니까?」 지난 9월 11일 안산 금강공업 노동조합이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불끄려는 동료 노동자 집단구타 연행

유로 1명을 추징하고 나서 서로의 입장이 팽팽해졌으나 경찰의 강제 영조로 투쟁은 대항한 출근으로 위장되었다. 해고당한 오세현씨의 출근투쟁을 빌미로 교섭을 결성시켰다. 결국 3차 교섭까지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8월 31일 4차 교섭을 하고도 합의점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3차 교섭이 끝난 29일 오후 5:30분경부터 회사측은 10여대의 트럭을 동원해 기계기와 원자재를 반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10일 위장투쟁으로 해고당한 오세현씨는 「노동조합이 해고를 하며 작업반이 일하면서 기계 원자재의 반출이 어렵지 않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생계위협을 가함으로써 노조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비열한 행위입니다.」라고 말하며 회사측의 의도에 위장투쟁 수단을 통한 노조조직을 위협을 받게 했다. 같은날 밤 10:30분경에는 관리직 사원을 동원해 기숙사를 봉쇄하고 기숙사생활을 강요했다. 이에 조합원 봉성수가 팔촌에 장래해 비상연락망을 취함으로써 11:30분경 회사측에서 조합원들이 모여 일민을 거쳐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회사측이 일방적인 휴업통고를 불

수출지역 여성 노동자 폭행·임산부 유산

「민주노조수사수」들을 부르며 대안을 정해내 줘야 한다는 경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갔다. 이렇듯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야 알았습니까? 기업주 정권, 경찰들은 손발이 뻗은 대로 있는 폭력배, 정권배 있었습니까?」 지난 9월 11일 안산 금강공업 노동조합이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한국스타 노동조합

9월 9일(수) 안산 의왕시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장기집권과 사진전시회

이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 27일(수) 안산에서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장기집권과 사진전시회

이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 27일(수) 안산에서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장기집권과 사진전시회

이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7월 27일(수) 안산에서 1000인명 규모의 집회와 투쟁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7.27'이 기록되어 있다. 이날 본보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며 집단투쟁을 벌여온 안산 금강공업과 최근 한국스틸, 수리대 이어 불법적 강제해고·인원감축을 통한 외국자본화 노조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한국스틸을 찾아보았다. (편집자)



환상의 콜롬비 II

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 시 오.

이제 「국제화시대」라는 말은 일상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국제화시대」라는 말은 일상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GoldStar의 자동화 시스템은 생산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또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GoldStar의 자동화 시스템은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GoldStar의 자동화 시스템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GoldStar의 자동화 시스템은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GS 産電部門

●金星産電 ●金星計電 ●金星機電 ●金星아니랩

